내서가의책한권

선비정신의 현대성 재조명한 '문명 비평서'

문화관광부 박문석 기획관리실장이 뽑은 조지훈의 《지조론》

"조지훈이 말하는 지조는 선비의 도입니다. 삶의 좌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성실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의 지조론은 우리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큰 울림입니다."

문화관광부 박문석 기획관리실장(54)은 행정전문가이자 문예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계간 《오늘의 문학》 신인작품상에 당선된 그는 학창시절부터 조지훈의 시를 읽으며 시인의 꿈을 키웠다.

"조지훈 선생의 시는 일찍부터 많이 읽고 좋아했지만, 그분의 인생철학을 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였어요. 《돌의 미학》 등 그분의 많은 작품들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지조를 강조한 《지조론》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입니다."

《지조론》(을유문화사)은 조지훈의 사상이 집약된 논설집으로, 절개있는 지성을 강조한 〈지조론〉과 함께 정치 · 경제 · 교육 · 종교 ·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시론(時論)을 담았다. 이 가운데 그가 제일 흠뻑 빠진 글이 〈지조론〉이다.

"지조는 선비의 도입니다. 하지만 흔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낡고 봉건적인 의미가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평생 살면서 삶의 좌표를 세우고 그 좌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조입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는 이 책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읽어보기를 간곡히 바란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와 윤리규범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조와 선비정신만 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사회지도층의 책임이 가장 크죠. 이 책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자성을 촉구하는 문명비평서입니다."

그는 이 책 외에도 《조선의 예술》(유종렬, 일신서적)과 《젊은이여 지금은 공부할 때다》(후쿠자와 유키치, 시사일본어사)를 추천하고 싶었다. 두 권 모두 지은이가 일본인인데, 전자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책이고, 후자는 일본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지은이가 학문의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역설했기 때문이다.

그는 올 봄 그동안 틈틈이 써온 시를 모아 첫 시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좀더 나이가 들어 공직에서 물러나면 조지훈처럼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시평집을 내고 싶은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다. – 김정은 기자

'동백꽃과 동박새' 중에서

그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
수없이 많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백나무 숲은 빨간 점이 찍힌
푸른 숲으로 바뀌었어요.

동백꽃과 동박새
이미숙 글 · 황연주 그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동백꽃과 동박새의 이야기

아동책 편집자 모집

아동출판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편집 ·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신입 · 경력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3월 8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주소 : editorial@marubol.co.kr

도서출판 마루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보여 주고 싶은 좋은 창작그림책을
꾸준히 기획 ·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코페미니즘의 새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참신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의욕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루벌
도 서 출 판 마 루 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 전화 701-2390 / 팩스 701-2395
http://www.marubol.co.kr